

인도주의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동학

길 은 배*

초 록

이 논문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접근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21세기의 초입에 들어선 오늘의 사회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사건들,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독스적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계층이 바로 청소년이며, 이들은 양자택일(either/or)의 논리를 거부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을 이야기할 때 청소년이 미래의 통일주역이므로 현재부터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접근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을 청소년 또는 청소년분야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느냐 하는 주체의 문제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 전략은 더 이상 청소년이 요구하는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지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층 내부에서도 계층, 성별 등에 따라 교류·협력관이 분할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동학을 논의하였다. 특히, 북한청소년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단계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인도주의적 지원, 교류·협력, 사회통합

*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I. 서론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¹⁾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 교류·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청소년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청소년층이 미래의 통일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므로 현재부터의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접근을 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남북 청소년 교류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추진된 남북 청소년 교류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분야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② 국내의 청소년관련 NGO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③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 ④ 청소년교류 파트너로서의 북한내 민간단체가 부재 한다. ⑤ 한총련 등과 같은 일부 불법·이적단체들의 불법적, 비공식적 접촉이 대국민 인식을 악화시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인식 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왔다. ⑥ 지금까지 남북이 제의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가 항상 정치적인 색채를 띤 대결양상을 보이는, 소극적·미시적인 제안들로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⑦ 남북 청소년교류의 주체인 정부와 청소년, 그리고 북한간의

1) 인도주의적 지원은 인도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중립성·형평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지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은 일반적인 국제지원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국제원조체계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지원체계는 냉전시대 동안 발전된 것으로, 강대국들이 재정지원과 식량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이념이 다른 국가에게는 제한함으로써 명백한 이념 대립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제원조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공적개발원조의 목표 및 전략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서로 다른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⑧ 제3국을 통한 제한적·간헐적인 접촉이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환경을 위축하고 있다; 등이다(길은배 외, 2000). 반면, 북한은 청소년들이 외부 세계의 자본주의적 환경을 접할 경우 그들의 이념적·문화적 이탈을 우려하여 청소년 교류를 회피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 교류와 협력을 바라다보는 남북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상충된 것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이라는 접근 방법은 위에서 지적한 남북한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북한 사회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은 국제사회가 확인한 사실이다. 북한은 이 문제의 공개를 꺼려하는 단계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구호지원 물품의 군사용도 전용 및 분배 투명성의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향후에도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외부 세계와 북한 사회가 만나는 통로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북한청소년과 주민들의 의식, 가치관 등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사회는 당위적 차원에서 남북 청소년의 교류와 협력 문제를 풀어가던 방식을 탈피하여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협력이라는 새로운 인식론적, 실천론적 접근 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북한청소년에 대한 일방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은 상호간의 접촉과 방문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교류로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직접적 접촉을 통한 인적 교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예로 북한 교예단 및 예술단의 서울 공연은 우리사회가 북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남한 가요 및 연예인들의 북한내 한류 열풍은 남한의 문화가 북한사회에 전파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직접적 교류 못지않게 간접적 교류의 성과를 충분히 확인해 주는 사례들이다. 교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반드시

직·간접적 접촉 여부만을 중시하는 절차적 정당성보다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미치었는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최근 청소년들의 의식 변화에 기초한 새로운 청소년 교류·협력 담론의 필요성과 적실성 있는 대안의 한 형태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접근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즉, 열악한 북한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매개로 남북 청소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경우 북한 측에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도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 등이 북한청소년 및 주민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어 궁극적으로 교류·협력이 추구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주로 국내외의 관련 문헌에 기초하였다. 단, 3장의 ‘북한청소년의 인도주의적 위기 실태’를 보다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2004년 8월에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면접 대상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북한이탈 청소년 20명으로 남녀 비율은 5:5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개방형으로 추가 질문을 하였다.

II.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에 있어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

21세기의 초입에 들어선 오늘의 사회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사건들,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현상은 신민족주의의 대두와 세계시민의식의 성장, 물질 만능주의와 탈물질주의, 보편주의와 원리주의, 문화의 동질화와 이질화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 분야나

학술 담론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과학, 기업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공존, 대량생산과 소품종 주문 생산의 동시적 추구, 전문화와 전문적인 영역 구분의 파기를 동시에 함축하는 것과 같이 겹으로 보기에 상충되는 현상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김종길, 2001). 이처럼 복잡성과 불확실성, 대립되는 요소들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는 개인과 조직, 국가의 수준 모두에게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목표들로 동시에 달성하도록 요구받는 ‘패러독스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R세대의 패러독스적 성향은 월드컵 축제기간 중 이루어진 길거리 응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현장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중적인 가치지향을 조화시켰다. 사이버공간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면서도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나타냈으며, 기성세대와도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와 더불어 선진세계에 일방적으로 매몰되지 않는 탈사대주의적 성향도 보였다(이종원 외, 2003 : 205 참조). 즉,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양자택일 대신에 집단적 개인주의를, 민족주의와 개방주의의 양자택일 대신에 개방적 민족주의를 택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명백히 양자택일(either/or)의 세대가 아닌 패러독스 세대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과거 기성세대가 보여줬던 태도는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한 양자택일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패러독스 시대, 세대의 모습은 우리가 통일·북한 문제를 둘러싼 환경 여러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논의와 관련한 태도, 또는 북한관에서 기성세대는 보수, 청소년층 또는 젊은 세대는 진보적이라고 일반화하는 이분법적 구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구분은 과거 한국전쟁의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이념적 성향을 재단하려 할 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나, 한국전쟁의 무경험자가

인구학적 측면에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기성세대 중에서도 자신들의 이익, 또는 일상생활과 연관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 성향의 구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층 내부에서도 계층, 성별, 인문·실업계열에 따라 통일·북한관이 분할되고 있는 현상²⁾은 페러독스 세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오히려 기성세대와 청소년층이라고 하는 세대구분보다 각 개인이 경험, 체험하는 일상생활을 축으로 그들의 이념적 성향을 설명해 가는 작업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층의 남북 교류와 관련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서해교전사태가 남북 교류활동의 참여 의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부산 아시안 게임의 북측 응원단 활동이 참여 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현재의 교류 저해 주요 요인으로 남북 고위층 모두를 비슷한 비율로 지칭하는 것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의 교류활동 만큼 온라인상의 교류활동을 선호하는 것에서 변화된 세대의 교류관을 엿볼 수 있다(길은배 외, 2003a). 더욱이 교류의 방법으로 과거에는 북한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수학여행, 문화유적지 답사 등이 선호도에서 상위에 분포하였으나, 최근에는 간접적 교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채팅, 게임, 그리고 남북 청소년들이 각기 창작한 미술작품, 문예작품 등의 교환 감상이 선호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남북 청소년교류의 소재로도 인라인스케이트, 댄스, 영화 등을 매개로 한 만남을 희망하고 있어 이제는 남북 청소년교류라는 문제 설정이 지역사회 속에서의 일상생활 처럼 가볍고 편안한 교류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남북 청소년교류로서의 수학여행 등은 청소년들의 욕구와는 다른 성인들의 고집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변화된 교류관을 남북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적

2)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길은배 외(200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를 참조.

의 현실로 구현해 낼 것인가이다.

이처럼 변화된 청소년의 남북 교류관은 그간의 기성세대 노력과 상충된다. 그동안 남북 청소년교류는 체육, 문화·예술, 학술, 방송분야 등과 같이 본래의 업무 성격에 기초한 교류 활동과 달리 ‘성인과 청소년’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대상 중심의, 교류의 주체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남북 교류가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든 교류의 주체가 성인, 또는 여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청소년분야가 소외되었다는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소년층이 미래의 새로운 통일주체 세력으로 부상할 것을 염두에 두어 남북 교류과정에 청소년층의 주체적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즉 남북 교류의 주체 문제를 청소년 교류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청소년층이 남북 교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학습여행·관광, 수련활동, 체육, 문화·예술, 학술, 방송 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교류가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체육, 예술 등의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청소년층이 포함된 교류 실적이 있어 청소년 교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들 영역은 여전히 남북 체육, 예술 교류 형태로 이해되는 현실이다. 반면에 학습여행·관광, 수련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류과정에는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남북 교류 환경에 비추어 보면 단시일 내의 성사는 어렵다. 즉, 현 시점에서 청소년층의 주체적 참여를 고려하여 남북 교류를 추진할 경우 그 영역이 매우 축소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층이 주체가 되는 남북 교류문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맞물려 장기적 과제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방송교류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포함시키거나, 문화·예술 교류시 청소년 대상의 내용을 첨가하고, 체육 교류시에도 대표선수 중심의 경기보다 생활체육 수준에서의 경기를 개최하여 일정비율 청소년 참여가 가능한 종목을 확보하는 노력이 현 시점에서 더 적실성 있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여타 영역에서의 남북 교류가 북한사회, 특히 북한청소년에게 미

치는 영향력은 남북 청소년 교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로 윤도현 밴드, 조영남 등이 북한 방문시 부른 대중가요가 북한의 청소년층에게 매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남한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아이는 한 세기 떨어진 애”(박동호, 2001년 10월호)로 취급받을 정도로 남한의 노래가 북한에 널리 퍼져 있다. 이처럼 비 청소년분야의 교류가 북의 청소년층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 청소년 교류의 궁극적 목적을 다시금 판단해볼 기제로 다가선다.

청소년교류의 목적을 무조건 만나게 하자는 당위적 차원으로 이해할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기존의 남한 청소년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모습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로 학업 부적응 문제는 단순히 학력 차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또래집단 속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부적응 및 상이한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 연동된 결과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화과정에서 매우 상이한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다툼을 우려하여 아예 또래간의 대화를 회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길은배·문성호, 2003b : 86-87). 많은 사람들이 첫 만남의 경험으로 이후에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는 성향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전혀 만나지 못한 남북 청소년교류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부른 만남, 특히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만남의 경험이 통일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청소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 만나는 접촉 수준의 교류보다는 상당기간 동안 간접적 교류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수반할 수 있는 교류가 있다면 보다 더 긍정적인 만남의 형태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류의 주체성 여부 및 직·간접적 교류의 파급효과 문제, 그리고 교류·협력의 궁극적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인식론적, 실천론적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접근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이라는 주제 설

정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우선 교류의 주체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은 청소년 및 성인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청소년 또는 청소년분야의 참여가 배제되었을지라도 그 수혜자가 북한청소년층이라는 측면에서 앞에서 논의한 남북 청소년 교류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북한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전달될 경우, 비록 인적 접촉이 없는 간접적 교류일지라도 남한사회를 비롯한 외부 세계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리는 것에 어떤 교류 형태보다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III. 인도주의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접근

1. 북한청소년의 인도주의적 위기 실태³⁾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은 신속한 긴급구호의 필요성을 동반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파악은 현장 접근의 제약과 당사국의 전반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 통제로 인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즉,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북한청소년의 인도주의적 위기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원 성과에 대한 평가도 어렵다. 다만 국제적 관례에 따라 인도주의적 지원이 취약계층인 청소년, 임산부, 노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북한청소년의 인도주의적 위기 실태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여기서 사용한 심층면접 결과 전문은 길은배·이우영(2004).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 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참조.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청소년층에 그 영향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이다(좋은벗들, 2004 : 43). 북한 청소년들은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식량 섭취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주사(백신), 치료의약품, 영양제의 부족 현상과 위생상태의 불량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1998년의 제1차 북한청소년 영양 실태 조사에 이어, 제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청소년의 영양 실조율이 지난 4년간 현저하게 호전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느슨해지면서 이들 청소년의 영양 상태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UNICEF, 2002.2). 청소년 영양 실조율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영양 실조율 및 발육 부진율이 매우 높으며, 게다가 최근에는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 다시 사태가 악화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표 1> 성과 연령에 따른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 장애 유병률(1998년)

구 분	표본크기(1,762명)		급성영양실조(%)*		만성영양실조(%)**	
	남(887명)	여(875명)	남	여	남	여
6~<12	61	83	19.1	16.5	23.0	8.2
12~<24	146	151	36.5	25.8	45.6	51.1
24~<36	159	133	25.3	14.2	63.7	60.2
36~<48	139	125	16.3	9.2	74.6	75.6
48~<60	141	125	14.6	3.0	80.0	75.0
60~<84	241	258	11.7	4.2	76.4	73.4
남여총평균			15.6		62.3	

※ 자료: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02 : 63쪽.

* wasted, 체중 대 신장 <-2SD.

** stunted, 신장 대 연령<-2SD.

급성영양실조와 만성영양실조 실태는 북한 청소년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발육을 저해하는 만성적인 영양실조 수치 62.3%도 중요하나, 신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급성영양실조도 심각한 문제이다. 정병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35만 명에 달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 증가 등의 직접적 문제뿐만 아니라 골격 자체의 성장이 멈추거나, 두뇌 발달상의 장애와 뇌신경 손상의 우려까지 있다”고 한다(정병호, 2003). 현재의 기근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임신부들의 영양결핍이 가져올 수 있는 태아들의 신체적 결함은 물론이고 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정신분열을 포함한 정신신경계통의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이 북한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02 : 58). 첫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청소년 성장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체중 및 신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과 비타민 부족에 의해 각막염, 야맹증, 괴혈병, 구루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철분 부족에 의한 빈혈 등 미네랄이나 소량 원소의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영양 부족으로 신체의 면역력이 감소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면서 감염성 질환 등 이차적인 다른 질병의 발생이 증가한다. 넷째, 사회적 대응력의 결핍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기근에 의해 가족과 지역사회 등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하고 탁아소, 육아원, 유치원, 학교 등의 청소년 보호시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북한청소년의 영양부족 현상은 그 기저에 식량난이라고 하는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식량난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냉이 밥과 강냉이 국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급을 못 탔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산에서 나무도 해서 팔고 약초도 캐서 팔아 식량을 구합니다. 장마당에서 훔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훔치다 걸리면 보안원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서로 먹을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가끔은 농장에 가서 먹을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안○○).

북한의 식량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배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기 때는 배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약초인 백출, 둥굴레, 장출 등을 캐거나 따다가 되거리 장사(중간상)에게 한키로에 대략 1,000원씩 팔아서 장마당에 가서 강냉이나 입쌀을 사서 식량을 구합니다. 입쌀은 한 키로에 400원인가 했습니다....(이○○).

그 결과 북한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은 남한청소년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아동사망률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청소년의 평균신장은 남자 155cm, 여자 152cm로 한국에 비해 10cm 이상이 작으며 몸무게도 10kg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남북한 청소년 평균 신장 비교

(단위: cm)

연 령(세)	북한 청소년	남한 청소년
7	-	126.3
9	-	136.4
11	105.0	150.5
12	120.0	156.7
13	124.0	163.5
15	142.0	171.5
18	151.3	175.7

※ 자료: 좋은벗들, 2004.

위의 <표 2>에 의하면 북한의 11세 청소년의 키(105.0cm)는 남한의 4세 유아의 신장(104.5cm)과 비슷하다. 남한 11세 청소년의 키인 150.5cm와 비교해 봤을 때 북한청소년의 신장발육 저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성장장애는 1998년 22%의 영아가 2.5kg 이하의 체중으로 태어났고, 7살 이하 62%의 아동이 성장장애와 16%가 쇠약한 상태이다(UNICEF, 2001 : 1).

<표 3> 남북한 청소년 평균 체중 비교표

(단위: kg)

연 령(세)	북한 청소년	남한 청소년
8	-	31.5
10	-	39.3
11	-	46.0
12	30.0	51.4
14	31.2	61.3
15	39.0	66.7
16	42.5	-
17	42.6	-

※ 자료: 좋은벗들, 1998 ; 보건복지부, 2002.

* 북한청소년 통계의 표본크기는 총 482명임.

표본 크기의 차이를 감안하면서 위의 표를 보더라도, 14세 북한청소년의 체중(31.2kg)은 남한의 8세 청소년의 몸무게(31.5kg)와 비슷하다. 이는 동일 연령대인 14세 남한청소년의 체중인 61.3kg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키가 작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몸무게도 물론 남한 청소년들이 더 좋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은 잘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북한의 아이들은 키가 작습니다. 농촌지원을 자주하여 김매기, 풀뽑기 등 힘든 농사일을 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키가 작습니다. 북한에서 몸무게가 47키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60키로그램입니다. 13키로그램이 차이가 납니다. 북한에서는 못 먹어서 몸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박○○1).

내가 북한에서 키는 139센티미터였습니다. 지금은 151센티미터입니다. 1년 만에 12센티미터의 키가 컸습니다. ... 먹을 것이 없어 몸무게도 적습니다. 영양을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이○○).

또한, 북한청소년들은 오랜 기간 식량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풀뿌리 등 대용식품의 섭취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많고, 만성적인 영양부족으로 발육부진 및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여 급증하는 전염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아울러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비위생적인 식수와 공공보건체계의 붕괴, 의약품의 부족,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등 기반시설의 불량은 전염성 질환의 증가를 가속화시켜 결핵과 간염 등의 유행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영양부족과 예방접종 미 실시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1990년 이후 자체 백신 생산량의 감소, 냉동 유통체계의 미비, 실린지 등 의료소모품의 부족으로 예방접종률이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표 4>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방법

가족 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례 수(개)	비율(%)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약도 쓰지 못함	330	63.4
병원에서 진단받고 약은 개인이 샀음	181	34.7
병원에서 면비치료(치료비 면제)를 받음	1	0.2
기 타	9	1.7
계	521	100.0

* 자료: 좋은벗들, 2001 : 42쪽.

북한난민 조사대상자에게 “북한에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63.4%가 ‘병원에서 치료받지도 못하고 약도 쓰지 못했다’, 34.7%는 ‘병원에서 진단받고 약은 개인이 샀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약 98.1%의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의료 치료조차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보건 관련 사회기반 시설의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한 언제든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잠재력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의료 및 보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역, 치료, 보건서비스, 깨끗한 식수, 위생 상태 유지 등 기본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기금 보고에 의하면 북한아동 사망률은 1990년에 9.2명이었는데 1998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1990년에 1,000명당 30명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55명으로 증가(UNICEF, 2001 : 2)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다.

1997년 파라티프스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파라티프스 병 치료에 먹는 약은 중국약인 레모미정 알약인데 한 알에 7원에서 8원합니다.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해 두 달 동안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병에 걸리면 병이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박○○).

감기나 학질 등 그런 병으로 앓습니다. 아픈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약을 공급하지 않아 병원에도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마당(농민시장)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쩔 때는 아파도 가만히 누워 있고 저절로 낫기만 바라기도 합니다. 고난의 행군에는 특히 더 어려웠습니다. (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청소년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심각한 식량난으로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평균 키 및 체중이 남한 청소년들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뒤지는 현상을 통하여 북한청소년들의 영양부족 실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상태가 불량해서 오는 질병에 대한 유병률 특히,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률의 증가 현상은 성장을 위한 영양 요구량이 높은 영유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결핵 환자의 증가, 소아마비, 홍역, 장티푸스, 간염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접근

1995년 수해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제까지 9년여 동안 지속되어왔다. 1996~97년을 정점으로 북한의 위기상황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도 국제사회의 구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위기상태가 재현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부 및 국내외 NGO에 의하여 1995년부터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지원 범위와 물량 또한 확대되고 있다.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주로 식량, 보건 및 의료 물품, 그리고 교육기자재 지원과 관련한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독자적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북한청소년들의 교과서 제작을 위한 용지보내기가 시작되었고, 2004년에는 룡천소학교 건립 지원을 계기로 북한 학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지원 사업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04년 6월 12일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2년여에 걸쳐 진행해 온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 병원’ 개관식을 가졌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이 개관식에 남측 청소년 대표 11명 등 96명의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직항공로로 방북을 하였다(「한겨레」, 2004.6.18 ; 「매일경제」, 2004.6.17).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남북 청소년 교류의 한 모델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남북어린이어깨동무가 그간에 추진하여온 단순 구호지원과 병행하여 개발구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이처럼 북한청소년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었으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특히, 최근 북핵문제가 재등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다시 제한됨에 따라 그 실태 또한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과거처럼 북한청소년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정치·군사적 대결 구도 속에서 조망할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으나, 인도주의적 측면과 통일과정 및 이후의 사회통합 단계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예로 통독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양쪽 주민간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직접적 원인이 과거 동서독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에서 초래된 각종의 생활환경 및 가치관의 차이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청소년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따른 열악한 보건과 교육 환경 등은 통일과정 및 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에 자명하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목적을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설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남북 청소년교류를 접근할 때 청소년층이 미래의 통일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세대라는 당위적 측면과 현 시점에서 성사 가능한 교류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우선 고려해 왔다. 여기서 동서독의 분단 상황에서 추진되었던 청소년교류가 통독 이후에 어떠한 긍·부정적 효과를 양산해 냈는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무조건적으로 만나는 직접적 교류가 과연 의식의 변화

를 가져왔고 통독 이후의 사회 적응 과정에서 적절했는가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 대학생이라는 사회적인 특별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구동독과 구서독이라는 두 개의 대립된 사회화가 존재하는 한 ‘동독 의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독인으로서의 소속감이 독일 민족의 소속감보다 우선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구동독 출신 학생들은 경쟁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고 더불어 새로운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 변화기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변환기를 성장배경으로 하고 있는 통일 독일 사회의 동독 출신 청소년들은 ‘통일의 수혜자인 동시에 패배자’라는 이중적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란, 2003 : 14-15).

위의 연구 결과는 우리보다 훨씬 발전적이었던 동서독의 청소년교류 역시 통독 이후의 사회통합과정에 미친 파급효과가 미약했음을 시사한다.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그 사회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문화의 변동내용에 따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인생관, 생활관,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실로 다양하다. 사회문화적 변화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성인에게서보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사회변동의 속도가 완만하고 사회질서가 매우 안정된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에 의한 문화전승과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기존질서의 틀을 큰 변화 없이 계승해 나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내외적 원인에 의해 사회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로부터 전수 받은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가지고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임희섭, 1995 : 227). 새로운 질서의 형성은 새로운 문화적 정향이 내면화한 새로

운 세대가 기성세대로 편입되어져 그들이 사회질서의 형성과 관리의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사회변동의 주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미래의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주도해 갈 잠재적인 사회세력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급진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내면화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사회질서의 관리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성인세대에 편입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일로, 세대교체를 통한 사회질서의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점진적인 성격의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역시 당장 몇 회가 실시되었다는 성과중심의 접근보다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층이 미래의 남북 사회통합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취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IV.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역할

탈냉전 이후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급증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져가는 가운데에도 북한에 대한 국내외의 지원활동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화되어 왔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층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의 식량난에 기인한 영양결핍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는 지원사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별국의 주권보호에 대한 관심보다 인권보호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권리와 의무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평양에 상주하던 국제 NGO들이 철수를 단행하면서 북한내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인도주의

적 지원의 성격을 둘러싸고 개발지원이 수혜국 주민들의 복지 및 안정에 실제로 기여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원 식량의 군사용도 전용과 배급의 투명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일기도 하였다.

국내외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배적 특징은 다른 위기 지역과는 달리 북한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큰물피해대책위원회’ 등 공식기구를 통해서 국내외의 지원을 총괄 조정하고, 북한의 중앙배급제를 통해 분배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이 아닌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에 대한 중앙배급제를 대신하는 등 북한권력체제의 정치적 이해를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의 기본원칙(지원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분배의 투명성 등)에 제약을 두면서 폐쇄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지원이 봉착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배급의 투명성 문제는 실제 북한의 전체적인 식량의 수급량보다는 청소년을 비롯한 특정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늘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왜냐하면 식량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함께 청소년층을 비롯한 특정계층의 식량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이 곤란하다는 것이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 분배가 특정한 계층에 의해 매집되었을 경우, 청소년층을 비롯한 일부 계층은 기근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대북지원 과정에서 인도주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자신들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이금순, 2003 : 60). 실제 국제사회는 긴급구호 사업을 통하여 폐쇄적인 북한 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하여 국제사회가 직접 체험하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제한적이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반면 북한은 처음부터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의 성격을 정치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지원물품은 최대한 확보하되, 주민접촉을 최소한으로

차단하고 그들에 대한 유엔기구나 민간단체의 접근을 최대한 봉쇄하는 전략을 구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엄격히 통제하는 배급망 속에서 지원을 주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입장도 북한과 협조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고, 북한 주민들도 배급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질수록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형성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상황은 북한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정옥임, 2004 : 5). 이러한 현상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간접적 교류의 파급효과가 제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들어 지원물품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제조 회사명이 그대로 표시된 채로 분배되어 대부분의 지원물품이 남한으로부터 반입되었음을 많은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북한이 이러한 지원 물품을 중앙 통제하여 특정 계층에게만 전달할 경우 간접적 교류의 파급효과는 반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지원주체와 지원에 의한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수혜자가 지원의 목표와 방식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라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북한이 상대의 현실을 이해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는 계속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사회가 외부세계를 만나는 창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사회로 진입하는 소통로의 역할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 예로 인도주의적 지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물자에 대한 지원국 및 지원 단체의 표시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청소년 및 주민들도 지원 사실에 대해 알게 된(북한이탈청소년 윤OO과의 인터뷰, 2004.8)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함흥출신 북한이탈청소년의 “수십 년간 우리는 남한과 미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배워왔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우릴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있다. 우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적인지 의식하고 있다”(Andrew Natsios, 1999) 는 증언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사례이다.

V. 결 론

우리는 현 시점에서 남북 청소년교류가 지향해야 할 우선 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남북 청소년교류의 궁극적 목적을 단순히 만나는 역사적 사건에 둘 것인지, 만남을 통하여 통일 과정에서 긍정적 동인으로 작용할 주도적 세력을 만들거나 교류를 통하여 북한청소년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단계에 대비할 것인지 등의 목표를 다시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종된 채 그동안 청소년분야의 교류를 지나치게 당위적 측면에서 고집해온 결과 10여년 전에 제안한 남북 청소년교류 방법이 현재까지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남북 청소년교류가 지속적으로 담보되어 교류의 궁극적 목표나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만나게 하자는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시작 지점에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가치관의 변화에 뒤 이어 행동의 변화가 뒤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북한청소년 또는 주민은 행동이 먼저 변화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이를 포장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념의 힘에 의해 지탱되는 북한사회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성인보다 청소년층에서 쉽게 발견된다.

따라서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단순한 구호물자 지원보다는 직간접적 형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간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의 경제적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적대적 의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의 문제가 북한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① 북한청소년의 인권실태에 관한 교육

강화, ② 청소년의 인도적 지원 참여 기제 개발, ③ 인도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연계 추진, ④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⑤ 인도적 지원 허용 품목의 확대, ⑥ 청소년관련 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 독자 창구 허가; 등의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는 남북 청소년교류가 갑자기 급증하여 년 몇 회, 몇 명의 교류가 성사되었다는 수치로 그 성과를 평가할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그러한 경험을 공유한 남북 청소년 모두가 반드시 타자에 대하여 수용적 인식, 또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는 설부른 예단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한의 대중가요가 뜻하지 않게 북한청소년 사이에서 불리어지고, 이것이 남한을 알리는 것에, 그리고 북한청소년의 일상 및 가치관 변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보다 미래지향적 교류의 형태일 것이다. 결국, 인도주의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문제는 장기적 구상을 갖는 통일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길은배 외(2000). NGO를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길은배·이종원·최원기(2003a).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길은배·문성호(2003b).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 연구, 제10권 제4호.
- 길은배·이우영(2004).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귀옥(2004). 북한어린이의 건강실태와 지원현황 및 과제. 민주평통 여성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김종길(2001).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전략: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집 3호.
- 박동호(2001). 방북단 사건, 남한의 현실, 미국 테러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생각: 북한은 지금 한류열풍, 돈 열풍. Keys, 2001년 10월호.
- 보건복지부(2002).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2002). 북한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서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이금순(2003).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이영란(2003). 통일 이후 구동독 출신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란: 베를린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통일 동독사회 청소년문제' 심포지엄 발표문.
- 이종원·이경상·김종길(2003).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희섭(199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 정병호 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 설립타당성 연구. 서울: 교

육인적자원부.

정옥임(2004). 대북 인도적지원의 변화와 발전 모색.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세미나.

좋은벗들(2004). 북한 식량난과 북한 인권 보고서. 서울 : 좋은벗들.

_____ (1998). 꽃제비 어린이 지원현황 분석. 서울 : 좋은벗들.

「매일경제」, 2004.6.17

「한겨레」, 2004.6.18

Amnesty International(200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ersecuting the Starving: The Plight of North Koreans Fleeing to China*. ASA 24/03/00.

Bennett, Jon(1999). *North Korea: The Politics of Food Aid,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Relief and Rehabilitation*. Network Paper, March 1999. <http://www.reliefweb.int/>

Natsios, Andrew(1999).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Aug.

UNICEF(2002). *A Humanitarian Appeal for Children and Women*. Jan. - Dec..

_____ (2001). *Humanitarian Action: DPR Korea Donor Update*. 12 Jul.

ABSTRACT

Humanitarian Aids and Dynamics of the Youth's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Kil, Eun-Ba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eek the possibility of encourag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the South's humanitarian aids for the youths. Since the late 1980s, the two Koreas made an effort to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However, inter-Korean exchanges mainly focused on economic areas and restricted mutual visit. As a result, inter-Korean relations was limited in terms of openness and interdependence.

At the beginning of a new millenium, we need to change traditional patterns of institutionalized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two Koreas, it is time to consider multiple channels of contact between them. To deal with this need, the role of the youth in their societies is vital because the youth, in general, emphasize the value of social justice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matters. This characteristic of the youth will contribute to develop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ased on this, the promotion of humanitarian aids could be a crucial point that leads to the evolu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youth. Particularly, this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new approach is examined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Through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o prepare for the social integration by inducing the openness of value system in the North and the complex interdependence of inter-Korean relations.

Key Words : humanitarian aids,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social integration

투고일 : 5월 5일, 심사일 : 6월 10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